이재오 최고 전격 사퇴… 한나라 '내홍' 기로

이제 공은 朴에게로

화합 물꼬 위해 '사퇴카드'… 朴 화 누그러질지는 미지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이 8일 최고위원직을 비롯한 모든 당직을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당내 화합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며 "나를 지렛대로 그 어떤 권력투쟁도 중단해야 한다. 백의종군하겠다"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도 경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수차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오만의 극치.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며 외면하자 끝내 사퇴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후보 선대위 내에서는 "이 최고위원 사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사퇴 반대의견과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일부 원로그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종의 파워게임 양상이 전개돼 왔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6인 회의'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와중에서 이 최고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는 것이 이 최고위원 주변의 설명이다. 이 최고위원의 측근인 진수희 의원은 "자신의 거취 문제로 이명박 후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의 사퇴로 당의 내분이 수습될 것인지 여부다. 이 최고위원의 측근은 "이제 박 전 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사퇴까지 한 마당에 박 전 대표 또한 당의 화합과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최고위원도 개인 성명에서 "내가 물러난 만큼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전략적 고려 없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박 전 대표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의 기대대로 박 전 대표 측의 태도가 누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문제는 이 후보가 진정성 있는 화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해서 당장 박 전 대표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에서 이 최고위원과 함께 사퇴를 요구한 이방호 사무총장의 거취 또한 변수다. 이 후보 측은 "선대본부장을 사퇴시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박 전 대표 측은 "당 화합의 실질적 걸림돌은 이 총장이었다"고 사퇴압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昌에 연일 십자포화

강재섭 대표 "昌과 내통하면 해당행위 처벌" 경고

한나라당은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하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우선 전날까지 '이회창 전 총재'였던 호칭이 '이회창씨'로 바뀌었고,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얼빠진 짓', '노욕', '구태정치 완결판' 등으로 규정되는 등 분노를 담은 험한 말들이 난무했다.

총대는 강재섭 대표가 직접 멨다.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씨가 기어이 한나라당을 버렸다. 창당 주역이 도리어 당에 총부리를 겨누었다"면서 "이는 국정파탄세력의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로, 반 좌파세력의 편을 가르고 힘을 빼는 얼빠진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회창씨 출마는 최소한의 명분과 절차도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뒤집는 노욕이고, 잃어버린 10년과 거꾸로 간 5년을 되찾으려는 국민 열망을 짓밟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과 후보들이 저지른 온갖 구태정치의 종합완결판"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한 이회창 후보의 출마를 '무임승차' '쿠데타', '탈법과 반칙' 등으로도 규정하면서 "탈법과 반칙에 의해 '법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단합이 최고의 무기요 최상의 비법"이라면서 "만의 하나, 이회창씨와 내통하는 인사가 있다면 해당행위자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전국 243개 지구당별로 이회창 후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16개 시도당별로 이 후보 출마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거당적인 '이회창 성토'에 나섰다.

/연합뉴스

"분열주의 책동 중단하라"

한나라 광주시당, 이회창씨 대선 출마 규탄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대의와 정치도의를 저버린 기회주의적 행태"라며 "분열주의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영 최고위원과 이만의 광주시선대위원장,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 김천국 광주시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비롯한 당원 100여명은 이날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국시멘트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총재가 끝내 탈당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경선 불복으로, 무능한 좌파 정권의 연장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총재의 대권 도박은 민주정치사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정치수준을 모독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권 야욕을 접고 출마선언을 철회하여 정권교체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한 영 최고위원이 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국시멘트 대강당에서 열린 이회창 전 총재 대선 출마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원들은 회견에 이어 광주시선대위 유세본부 발대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다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근혜-이재오 '질긴 30년 악연'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8일 "모든 것을 버리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30년 악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악연은 유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화 투사' 출신으로 다섯차례 옥살이를 한 이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만 세 번이나 감옥신세를 졌고, 그 중 한번은 박 전 대표 관련 사건 때문이었다.

그가 1979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자격으로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안동댐에서 당시 새마을봉사단 총재였던 박 전 대표의 큼지막한 방생기념탑과 그 옆에 있던 안동댐 건설공사로 숨진 인부들의 초라한 위령탑을 본 뒤 "이것이 유신독재의 실체"라고 일갈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구속됐다.

이 최고위원은 1996년 신한국당에 들어와 15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고 박 전 대표는 2년뒤인 1998년 4월 재보선을 통해 한나라당에 합류했다.

동료의원이 됐지만 두사람은 이후로도 감정의 골을 좀처럼 메우지 못했다. 탄핵사태 직후였던 2004년 8월 당 연찬회에서 이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를 겨냥, '독재자의 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박 전 대표도 "3공, 5공이 당의 뿌리인지 모르고 들어왔느냐"며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경선이 이 최고위원을 지원한 이명박 후보와 강 대표를 지원한 박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두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이명박 후보 캠프의 총사령탑을 맡았던 이 최고위원은 사실상 박 전 대표에게 '견원지간'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연합뉴스

미소짓는 박근혜측 의원들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사퇴한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왼쪽부터), 최경환 의원 등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고 건 역할론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 국면로 진행되던 대선 구도가 이 전 총재의 가세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보수대연합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에 나섬에 따라 한때 범여권의 유력 주자였던 고 전 총리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범여권에서는 고 전 총리가 범여권 후보단일화 과정 및 민주·개혁세력의 단일 대오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전 총리가 대선 중도 포기의 아픔을 털고 범여권 진영에 전격 합류, 보수세력에 맞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을 호소한다면 막판 대선 판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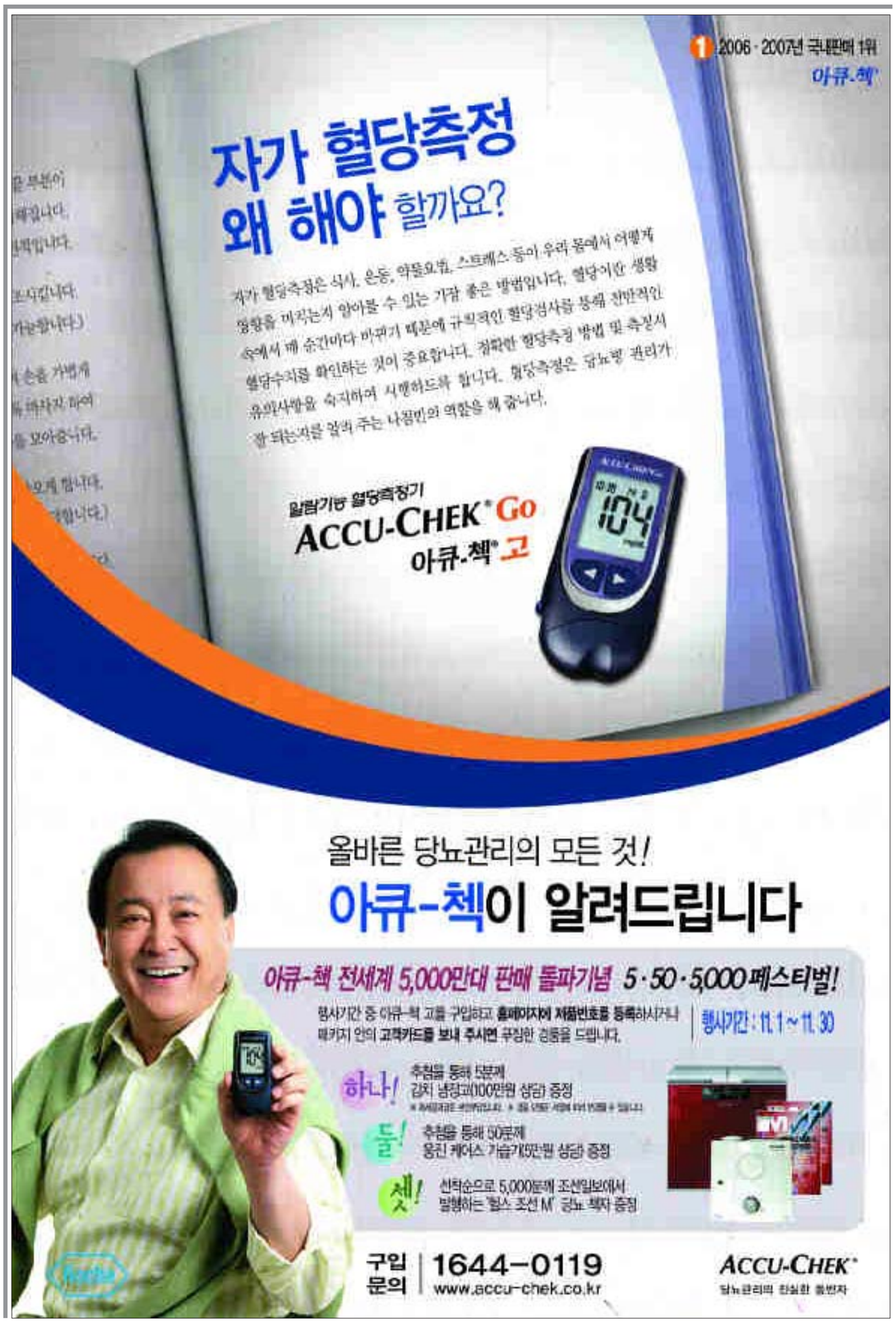
즉,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고 전 총리의 결단은 대권 3수에 나선 이 전 총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에 계기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 캠프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고 전 총리와 물밑 접촉에 나서며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 전 총리는 범여권의 이같은 요구와 기대에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지난 1월 대선 출마 포기와 함께 정치권을 떠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 정국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범여권 대선 주자로 나섰을때 정치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 전 총리 측 인사는 "대선 주자로 나섰을때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 불쏘시개로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편리한 발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으나 "고 전 총리께서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놨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가도에서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결국 뒤돌아섰던 고 전 총리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서울시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고 전 총리가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선 막판 고 전 총리가 정치적 아픔을 털어내고 시대적 요구를 위해 몸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현처지에 안주할 것인지 궁금하다.특히, 고 전 총리의 성장과 부침을 애정으로 지켜봐왔던 호남 민심은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tuim@kwangju.co.kr